

진여원(眞如苑) NEWS LETTER

[제17호](2015.2/3)

서울시 용산
구 청파동
3가 119-2
진여원홍보
팀

부산정사, 불교계 및 지역사회에 개방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15년 상반기 학술대회를 진여원 부산정사에게 개최

대학교수이면서 불교도들로 구성된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2015년 정기학술발표대회를 2월 24일 진여원 부산정사에게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대회의 주제는 “진여와 열반”으로서 열반경 속에 녹아든 자비실천행의 정신이 집중 조명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진여원의 시타라 국제부장이 ‘진여원 창시자 개조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논문발제를 통해 “진여원의 창시자 이토신조의 불성사상이 한국불자들에게 전달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교수불자연합회의 최용춘 회장이 “한국에서 진여원의 사상과 수행활성화에 대한 소고”를 발표하는 등 8명의 교수가 각각 발표하였다. 이날 학술대회는 열반존상이 안치된 3층 보전에서 개최되었는데, 학회 회원 및 방청객 합하여 6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학술대회 내용은 불교TV(BTN)의 전국 뉴스에 방영되었다.

부산정사,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불교관계기관 등 외부에 이용 제공

진여원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부산정사의 1층 카페테리아를 지난 2월부터 지역주민과 불교관계기관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진여원은 연제구청이 지역주민을 위해 행하고 있는 학습관 제공사업인 ‘똑똑 Place’ 사업에 진여원의 카페테리아 일반공개를 신청하여 지역주민 및 불교관련기관이 구청을 통해 카페테리아 사용 희망시 허락한 것이다. 지난 2월에는 부산불교TV의 합창단원이 4차례나 이용한 바 있다.

국제부 포교사, 매월 10일간 체류, 상담 등 지도

일여기념 등 법요시에 맞추어 파견되어 오는 국제부 포교사들이 작년 후반부터 매월 10일간 장기체류체제로 전환하였다.

이 기간 중 감정접심이 가능한 포교사들은 일반교도들의 고충 등 상구보리에 응하기도 하고, 영능자·그룹장(스지오야)·사무국원들의 연수를 지도하기도 한다. 일반교도들은 누구나 상구보리 등 고충을 사전예약 통해 단독으로 상담이 가능한데, 많은 교도들이 신심향상 및 자신의 주변 문제 상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진여원, 연제구 고교생에게 장학금 전달

진여원은 2월 25일 부산시 연제구 소재 고등학교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불교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이위준 연제구청장이 자리한 가운데 연제구청에서 행했다. 이번 장학금은 시타라 국제부장이 직접 전달하였고, 사토 한국담당, 고호도 이사, 김영준 사무국원 등이 함께 참석하였다. 시타라 국제부장은 장학생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고 맘껏 펼쳐 세계인에게 도움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당부하였다. 진여원의 연제구 관할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전달은 매년 행해지고 있는 진여원의 사회공헌사업 중 하나이다. 한편 이날 장학금 전달식은 불교TV(BTN)의 전국뉴스에 방영되었다.

전선희 사무국원, 한수행 결원 좌담회 행사에 참여

한수행 결원에서는 무상점심의 의미에 대한 좌담회가 개최되었는데, 전선희 사무국원이 참석하여 자신의 체험을 발표하였다.

이번 좌담회는 신노엔 고유의 수행방식인 점심수행을 유상점심에서 무상점심으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여러 교도들의 실제체험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프로그램으로 시타라 국제부장이 진행을, 대담자는 전선희 국원 이외에 미국과 유럽의 신노 교도 4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좌담회는 한수행 해외판으로 일본을 제외한 전세계에 방영되었다.

이나리 호법선신 주(呪), 산스크리트어로 신설

진여원의 호법선신인 카사노리님의 주(咒 진언)가 2015년 2월 신통영묘에 근거한 열반원리와 전등법류에 비추어 산스크리트어로 “**은 사리 마네이 소와 카**”로 새롭게 결정되었다. 카사노리님은 신초지 지진제(1938년 6월 8일)때에 성지의 호법신으로 용출하셨는데, 진언은 개조께서 투시하신 보주(宝珠)를 상징으로 호법과 복덕풍양(福德豐穰)을 알리는 밀주(蜜咒)로 알려져 있다.

2015년 이사회, 부산정사에게 개최

재단법인 진여원의 2015년 정기이사회가 3월 22일 부산정사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측에서 4명, 일본측에서 4명의 이사가 참석하여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금년도의 새로운 정진방향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청년회 서울, 초콜릿 이벤트 행사 개최

청년회(서울)는 2월 14일 초,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콜릿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직장인을 제외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모임으로서 학생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초콜릿 만들기 이벤트를 선정하여 행하였다. 당일은 발렌타이데이이기도 하였는데, 이날 만들어진 초콜릿은 다음날 법요 때에 일반교도들에게 나누어졌다.

청년회, 폭포수행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

청년회는 3월 7일 및 8일 서울포교소 및 부산정사에서 각각 폭포(자타키)수행을 실시하였다. 이번 폭포수행은 지난 2월 응현원에서 개최된 폭포수행에 참석하지 못한 청년 교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에서는 15명, 부산에서는 8명이 각각 참여하여 아직 추위가 채가시지 않은 계절에 108배 등 심신연마 수행이 이루어졌다.

<이달의 포토>



초콜릿 이벤트에 참가한 학생청년들의 환한 미소

원내세미나 주제1 : 한국과 일본 불교의 차이점(박노경 영능자)

진여원 가르침과 한국 불교와의 상이점에 대해 일본불교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일본 불교의 특징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불교의 전래과정

모든 사물에 정령이 들어있다는 신도(神道)가 일본에서 유일한 종교인 상황에 불교가 538년 백제를 통하여 전해졌다. 당시 새로운 종교인 '불교'는 전통적인 '신도'와 보수집단들에 의해 반대되었지만, 587년의 왕위계승전쟁에서, 승불파인 '소가문'이 배불파에 승리를 거둔 후 성덕태자(574~622)를 섭정에 임명하여 조정에 불교를 전파하고 확립시켰다.

성덕태자는 스승인 고구려 '혜자'와 백제 '혜충'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불교를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채택하고, 일본불교의 초석을 다졌다. 그로 인해 일본에서는 성덕태자를 '일본불교의 교조(敎祖)'로 존중하며 신앙으로까지 발전했다.

일본은 이후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직접 유학승을 파견, 불교를 받아들이고, 국가에서 장려했다. 일본재래의 정령, 제신(諸神)들은 인도불교의 제불보살의 화현으로 생각하였으며 이같은 신불습합(神佛習合) 사상은 일본불교의 큰 특색 중 하나로 계승되었다. 일본불교는 세속의 사람들에게 대한 자비와 이타행의 실천을 중시하는 대승불교로서 신앙과 현실의 사회생활을 결부시키는, 재가불교의 성격이 강하다.

2. 시대별 일본불교의 특징

(1) 6세기 말 아스카(飛鳥) 시대

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숭불파인 '소오가'가 성덕태자를 앞세워 약 30년간 불교를 장려하며 섭정을 했다. 부처는 국가를 지켜주며,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힘이 있다고 믿었던 일본고대국가는 불교를 부흥시켰다.

(2) 8~9세기 나라(奈良) 시대

불교사상은 내세에 대한 개념, 자선과 봉사에 관한 새로운 윤리적 가치들을 강조하였고, 불교영향에 의해 장례풍습에 매장이 감소되고, 화장이 채택되었으며 살생을 금하여 당시 일본인들의 호전적인 잔인성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당시 불상들의 일부는 한국에서 전해졌거나 한국 이민들의 창작품이 많았다.

교학측면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불교성파를 흡수하여, 수입경로에 따른 종파를 성립시켰다. 이 시대에는 큰 불사가 많이 행해져 민생(民生)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권력을 등에 업은 승려들의 부패도 큰 문제가 되기도 했다.

(3) 9세기 초 헤이안(平安)시대

사이쇼(最澄)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천태종이 도입되었다. 이 시대의 불교도 전체적인 상황은 '승가'와 '세도가'와의 결탁으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승가의 타락, 부패와 야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개혁적인 새로운 2개의 종파로, 천태종과 진언종이 나타났다. 9세기 초, 홍법대사 구카이(空海 774~835)에 의해 중국에서 진언종이 소개되었는데 이는 티베트와 네팔 등지에 전파된 밀교의 한 형식으로서, 비로자나불을 본존불로 삼고 있다. 진언종은 의식의 장엄함

과 화려함으로 인해 당시 조정 및 지배계층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이후 진언종은 천태종을 대신하여 점차 조정과 밀착되어 갔다.

① 천태종은 '법화경'과 '열반경' 가르침을 토대로 모든 인간은 출생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다는 사상이며 사람들의 본질은 동일하기 때문에 모두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② 이에 반해 진언종은 홍법대사를 신격화시켜 예배함으로써, 천태종보다 더 유행하게 되었다. 진언종의 이상은 "즉신성불"이며, 명상과 수행을 중시했다. 수행은 삼밀(身, 口, 意)의 작용을 삼위일체로 하여, 인간의 혼의 성장을 추구하고 깊은 명상 속에서 대일여래(大日如來)와 일체화되고자 하는 것이었다. 즉 부처의 힘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 혼이 부처에 들어가, 부처와 내가 신비적 융합의 경지에 이르는 입아아입(入我我入)이 되어, 우주의 대생명과 일체화된 진리를 명확히 했다.

(4) 가마쿠라(鎌倉)시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종파로 등장한 선종(禪宗)은 수행에 의한 자력의 체험으로 부처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가르침이다. 경전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체험과 수행에 의해 직접 부처의 경지에 합체하려고 하는 것이다.

반면, 일연스님은 경전 중 [법화경] 이야말로 말세에서 행해야 할 정법이라 믿고,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남묘호렌게교오]의 일곱 자를 외우기만 하면 남녀노소 귀천의 차별없이, 누구나 현세에서 성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을 외는 것에 따라 법화경에 내재된 구원의 부처, 석존과의 만남이 실현되고 불성이 나타나며, 이 세상에서 영원의 생명과 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출가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동남아의 상좌부 불교와 달리 이 시대의 일본불교는 세속 사람들에게 대한 자비와 이타행의 실천을 중시하는 대승불교로서 신앙과 현실의 사회생활을 결부시키는, 재가불교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승려들에게는 화려하게 수놓은 비단 승복도 금지되지 않았고 예배의식 또한 산속의 사원에서보다,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불단 앞에서 행해졌다.

(5) 명치유신 이후

근세에 들어와 명치유신(明治維新)이 일어나자, 천황에게 신권(神權)을 부여하여, 불교의 성왕(聖王)인 전륜성왕과 동일시했으나, 일부 양심적인 불교도는 이러한 작태를 비판하고, 불교정신 회복에 앞장섰다. 1932년 '일련종'의 매미의랑(妹尾義郎)이 주도했던 신흥불교청년동맹이 대표적이다.

오늘날 일본불교의 역사적 특색 중 하나는 엄격한 종파불교이며 천태종, 진언종, 정토종, 정토신종, 선종, 일련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종파가 다르면 본존불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가람의 배치양식, 가사의 색깔과 모양, 심지어는 독경의 음률까지도 다르다.

일본불교는 불교학에 대한 연구 열의와 성과가 대단하며, 대승불교권에 속하는 가운데 밀교적 성향도 강하다. 또한 종파사상이 발달해서 불조 석가모니부처님을 숭상하지만, 종조와 개조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경향도 있다. 우리나라의 조계종이 불조

석가모니부처님을 주로 숭상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또한 주술적인 기도가 민중의 생활에 깊이 침투되어 실리추구의 도구가 되었고 장례가 승려의 중요한 직무중 하나가 되었으며 신도(神道)사상과 동화하여, 타협의 결과 신불혼합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다른 나라보다 자선과 이타에 앞섰고, 사상적으로 순수화하여 불교사상을 발전시켰다. 이런 문화적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여원이 한국불교와 좀 다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3. 주요 종단의 종지

① 천태종에는 법화경에 나와 있는 법신불을 본체로 할 뿐, 본존불은 없고, 아미타여래, 약사여래 등을 봉안하고 있다.

② 진언종 제호사(醍醐寺)는 신묘 개조께서 수행하신 곳이다. 현교는 석가모니가 교주이지만, 진언밀교에서는 법신 대일여래가 교주가 되고 대일여래가 직접 설했다고 하는 대일경, 금강정경을 소의의 경전으로 하며, (신,구,의)삼밀의 가지(가호와 호지)로써 '즉신성불(卽身成佛)' 한다는 것이 종지이며 태장계와 금강계의 양부 만다라에 천 8백여 불보살을 모시는 현실 긍정의 교의가 특색이다.

③ 법화종으로도 불리는 일련종은 일련성인(日蓮聖人)이 개창한 종파로 한국의 법화종 계통이 여기에서 나왔다. 염불대신 '나무묘법연화경'이라는 만다라를 써 붙여놓고 염불대신 '묘법연화경'을 창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토계가 개인의 제도를 역설하는 것에 비해, 묘법연화경을 소의의 경전으로 하고 있는 일련종은 국가사회의 제도에 중점을 두어 정치참여도 한다.

4. 일본불교와 한국불교의 차이점

이상에서 일본은 종파불교의 형태로 발전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왜 이런 종파불교가 다른 나라보다 더 발달되었는가? 이는 다음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첫째, 일본은 원래 상하관계, 주종친자 관계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겉치레와 예의 및 절도가 철저한 국민성 때문에 의제와 의식이 통일되고 잘 발달됐다.

둘째, 교학측면에서 한국불교는 현세학적인데 반해, 일본불교는 잘 발달해 있는 편이다. 한국불교에서 보면 매우 전문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불교는 국민에게 장례를 치워주는 일이 필수사무가 되어 있어 '장례불교'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 본받아야 할 점도 있다. 과거 일본에 한국불교가 건너간 이후, 지금까지 국민정신을 함양해 왔으며 불교를 떼어 놓고 일본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일본불교는 독자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일본의 불교는 백제에 의해 전파되었으나, 그 후 독자적으로 발달했다. 우리나라의 불교는 어렵고 경건하며 일반 신자 입장에서는 생활과 좀 유리되어 있는데 반해, 일본불교는 외래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이 그대로 부처의 삶이다'라는 생활불교에 가깝다.

넷째 한국 출가불교는 불법을 공부하고, 세속과 인연을 끊는 등 일반인의 생활과는 별개라고 보는 데 반해, 일본 불교는 출가하여 산 속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으며, 한국의 간화선처럼, 애써서 좌선 수행에 힘쓰거나 계율에 급급해 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승려는 결혼도 하지 않고 세속과 관계를 아예 끊고 득도하기 위해 밤낮으로 불경을 외우고 심신을 수련하지만 일본의 승려들은 세속생활을 하면서 불교수행과 정진을 하는 특징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불교는, 우리나라나 중국의 불교와 뿌리가 동일하면서도, 다른 점도 있다. 이러한 일본 불교 문화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일본은 불교에 의한 문화나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은 역사적 인연이 깊다. 한국불교는 해방 후 조계종을 위주로 통합되고, 교조로 석가모니부처님을 본존불로 모시고 있는 것에 비해 일본불교는 종파불교 성격이 강해, 석가모니부처님을 모시면서도, 종조와 개조를 숭상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런 일본 문화의 특색으로 인해, 진여원에서는 석가모니부처님과 함께 개조와 영조님을 숭상한다. 이상과 같은 일본불교의 특징이 한국불교와 다르게 보이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이 글은 2015년 한수행 개백 때에 행해진 원내 세미나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임)